

[서평] 원혜영 부천시장의 『발상을 바꾸면 시민이 즐겁다』

지난 6월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치러진 원혜영 경기도 부천시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서, 원시장의 책을 읽은 느낌을 남겼습니다.

“지방행정에 관해 모범적인 사례를 정리한 책으로 일본의 이와쿠니 데쓰도가 쓴 '지방의 도전'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.

미국의 거대한 금융회사 임원을 지낸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가 일본의 작은 지방자치 단체에 장으로 선출되어 지방행정의 혁신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었습니다.

그 책은 능력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.

이에 반해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개혁을 추진한 원혜영시장의 책은 세상과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사람이(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)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 책입니다.

요즘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각종 처세술과도 비교됩니다.

자기가 잘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처세술에 비해 원시장의 책은 이웃과 세상이 잘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“